

오클랜드 성 김대건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KOREAN CATHOLIC CHURCH
6226 CAMDEN ST. OAKLAND, CA 94605 WEB WWW.OAKCC.ORG

주임신부 Fr. Dominic Kim 김도미니코(광근) (510) 562-3843 사무실 (510) 553-9434 Fax (510) 639-4842
 사목회장 Lay council chair 게토마스(성일) (510) 589-3311 standrewoak@gmail.com
 thmschae@yahoo.com 대건회관 (510) 562-8107

미사	주일 미사	오전 8:00 오전 11:00 영어미사 12시 30분	성사	고백 성사	미사 30분전	예비자 교리	주일 오전 9:30(106회의실) 목요일 저녁미사 후(대건회관)
	평일 미사	수,금,토 오전7:30 화,목 오후7:30		유아 세례	2주일 전 신청		
신심	성 시간	매월 첫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지속적인 성체조배	병자 성사 봉 성 체	2주일 전 신청	통신교리 - 전화문의	
	성령 기도회	매주 토요일 미사 후 (대건회관)		혼배 성사	3개월 전 신청		
	항심 기도회	매주 목요일 오후 8시(107회의실)		매월 첫 금 9 PM ~ 토 7 AM			
	하느님의 뜻영성	매주 목요일 오후 8시(103회의실)					
주일 학교	매주일 오전 11:00-12:15	한국학교	토요일 오전 9:40-12:40				

아씨시의 프란치스코처럼
세상의 눈물을 외면치 않으며
그들의 목소리에 응답하는
평화의 사도가 되어주소서,



제266대 교황 프란치스코

- [제 1독서] 이사 50,4-7
 [화답송] 시편 22(21),8-9,17-18,19-20,23-24(◎ 2~)
 ◎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 보는 사람마다 저를 비웃어 대고, 입술을 비쭉거리며 머리를 내젓나이다. 주님께 의탁했으니 구하시겠지. “그분 마음에 드니 구해 내시겠지.” ◎
 ○ 개들이 저를 에워싸고, 악당의 무리가 둘러싸, 제 손 발을 묶었나이다. 제 뼈는 마디마디 셀 수 있게 되었나이다. ◎
 ○ 제 옷을 저희끼리 나눠 가지고, 제 속옷 내놓는 제비를 뽑나이다. 주님, 멀리 떠나 계시지 마소서. 저의 힘으신 주님, 어서 저를 도우소서. ◎
 ○ 저는 당신 이름을 형제들에게 전하고, 모임 한가운데 에서 당신을 찬양하오리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야곱의 모든 후손들아, 주님께 영광 드러라. 이스라엘의 모든 후손들아, 주님을 두려워하여라. ◎

- [제 2독서] 필리 2,6-11
 [복음 환호송] 필리 2,8-9 참조
 ◎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 하셨네. 하느님은 그분을 드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네. ◎

성가	8시 미사 11시 미사	입당 10 입당 -	봉헌 216 봉헌 211 220	성체 169 성체 154 169	파견 119 파견 123
----	-----------------	---------------	----------------------	----------------------	------------------

주일 전례 봉사

구분	주님수난성지주일(3월 24일)		성삼일(3월28,29,30일)			예수부활대축일(3월 31일)
	8시	교중미사	성목요일	성금요일	부활성야	교중미사
미사해설	이바오로(명국)	황테레사(혜정)	허세실리아(홍숙)	조레지나(선덕)	김안토니오(휘)	이마리크레센시아(정현)
제 1 독서	최분도(환준)	심미카엘(태규)	이레이몬드(창용)	조바오로(병국)	1독서:최분도(환준)	이요한(세호)
제 2 독서	임루카(승원)	백헬레나(승화)	이베로니카(경란)	조마리아(상희)	3독서:김글라라(순희)	영어
보편지향기도	독서자		독서자	독서자	5독서:김안드레아(찬곤)	독서자
수난복음	김안토니오(휘)	이레이몬드(창용)		구미카엘	7독서:김안젤라(영선)	
	저스텔리(애리)	소키리아(정호)		이마리크레센시아	사기 이르카(스외)	

오늘의 강론

세상은 요지경

성주간을 시작하는 성지주일인 오늘 우리는 미사 전에 성지가지 축성과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는 장엄한 행렬을 하고 이어서 미사 중의 말씀의 전례에는 루카에 의한 예수님의 긴 수난기를 봉독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입성 때에 겔롯을 길 위에 퍼놓고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임금은 복되시어라.’ 하늘에 평화, 지극히 높은 곳에 영광!”을 외치던 군중들이, 얼마 뒤에는 갑자기 돌변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수난과 죽음을 앞둔 처지에서 비장한 각오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과 그 때 그때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부화뇌동하는 군중들의 비겁한 모습은 참으로 큰 대조를 이룹니다.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잘 살펴보면 우리에게 큰 묵상거리를 제공해 줍니다. 우선 은전 서른 닢에 존경하는 **스승을 팔아넘긴 유다**, “**주님과 함께라면 감옥에 갈 준비도 되어 있고, 죽을 준비도 되어 있다고**” 호언장담했으나 닭이 울기 전에 세 번이나 스승을 모른다고 배반했던 **베드로**, 죄 없으신 예수님을 조롱하고 채찍질 했던 **철부지 군사들**, 또한 말도 안 되는 죄목으로 예수님을 무고한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 예수님께서 죄가 없는 줄 알면서도 십자가형에 처하라고 내어 준 **빌라도**, 사실 이 모든 이들은 바로 나 자신일 수 있고, 또는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고 있는 당신일 수도 있습니다. 전혀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지만 세상 돌아가는 일들을 가만히 보고 있노라면 절로 한심하고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서로 죽고 죽이는 전쟁을 멈추지 않는 이라크와 시리아를 비롯한 중동의 몇몇 나라들과 종교와 종파간의 갈등 때문에 분쟁이 결코 멈추지 않는 나라들, 그리고 최근 들어 동북아와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는 북한의 철부지 떼쟁이 같은 세력들, 또한 온갖 비리와 불법으로 얼룩진 인사들을 고위 공직자로 억지 임명하려고 무리수를 두고 있는 한국의 박근혜정부의 한심한 인사들, 이 모든 일들은 결국 그 옛날 무죄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과 같이 언제나 기회주의적이고 욕심 가득한

이기적인 자들이 만들어 낸 모순적이고 절망적인 오늘날 세상의 모습이며, 그야말로 요지경 세상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당신 자신을 낮추시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셔서**”(필리2,8) 구원사업을 이루셨지만 이 세상은 여전히 이기심 가득한 요지경 세상인 것이 사실이고, 예수님의 구원사업은 이미 시작은 되었지만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상태이며, 언제 완성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며, 미래가 밝지도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코 여기서 절망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은 평화의 기도에서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이라고 노래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뜻을 모아 하나씩 세상을 바꾸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부터 먼저**”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2013년 신앙생활 지침
“주님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루카 19,5)

하느님의 자비 축일 전 9일 기도(1)

예수님께서 파우스티나 성녀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네가 이 9일 동안 나의 자비의 생으로 영혼들을 인도하기를 원한다. 그리하여 그들이 거기에서 힘을 얻고 원기를 회복하며, 그들이 고된 생활에서, 특별히 죽을 때에 필요한 모든 은총을 얻게 되기를 바란다. 날마다 너는 나의 성심으로 다른 영혼들을 데려 오고 나의 자비의 바다에 잠기게 하여라. 그러면 나는 모든 영혼들을 나의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하겠다. 날마다 너는 나의 쓰라린 수난의 힘에 의지하여 이 영혼들을 위해 나의 아버지께 은총을 간청하여라."

◆ 첫째날 ◆ 3월 29일(성 금요일)

"오늘은 모든 인류를, 특별히 모든 죄인들을 내게 인도하여라. 그리고 그들을 나의 자비의 바다에 잠기게 하여라. 이렇게 함으로써 너는 잃어버린 영혼들이 몰아넣은 크나큰 슬픔 속에 잠긴 나를 위로하게 될 것이다.

"지극히 자비로우신 예수님, 저희를 동정하시며 저희를 용서하시어 본성이신 예수님, 저희의 죄를 살피지 마시고 주님의 무한한 선하심에 의탁하는 저희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선하심에 의탁하는 저희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지극히 동정심 많은 성심 안에 저희 모두를 받아 주시며, 저희가 주님의 성심을 떠나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성부와 성령과 일치시키는 그 사랑에 의지하여 주님께 간청하나이다.

영원하신 아버지, 지극히 동정심 많은 예수님의 성심 안에 싸인 온 인류에게, 특별히 불쌍한 죄인들에게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눈길을 주소서. 예수님의 수난을 보시고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저희가 영원하신 하느님 자비의 전능하신 힘을 찬미하게 하소서.

아멘. (하느님 자비의 5단 기도를 바칩)

◆ 둘째날 ◆ 3월 30일(성 토요일)

"오늘은 내게 사제들과 수도자들의 영혼을 인도하여라. 그리고 그들을 나의 깊은 자비의 심연에 잠기게 하여라. 그러면 그들은 나에게 이 극심한 수난을 인내하도록 힘을 준다. 수로(水路)를 통하듯이 그들을 통하여 인류 위에 나의 자비가 흘러가게 된다.

"지극히 자비로우신 예수님, 좋은 것은 모두 내어 주시는 예수님, 주님의 구원사업에 봉헌된 이들에게 주님의 은총을 부어 주시어 그들이 하느님의 자비에 합당한 일들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심으로써 그들을 보는 모든 이들이 하늘에 계신 자비로우신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영원하신 아버지, 주님 포도밭에 선택된 자들, 사제들과 수도자들의 영혼 위에 아버지의 자비의 눈길을 보내 주시며 아버지의 축복의 힘을 그들에게 주소서. 그들을 감싸고 계시는 아드님의 성심의 사랑을 보시고 그들에게 아버지의 능력과 빛을 나누어 주시어 그들이 다른

끝없는 자비를 영원히 찬미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하느님 자비의 5단 기도를 바칩)

◆ 셋째날 ◆ 3월 31일(부활 대축일)

"오늘은 열심히 충직한 영혼들을 모두 내게로 인도하여라. 그리고 그들을 나의 자비의 바다에 잠기게 하여라. 이 영혼들은 십자가의 길에서 내게 위로를 주었다. 그들은 쓰라린 비통의 바다 한가운데서 위로의 물방울이었다.

"지극히 자비로우신 예수님, 주님 자비의 보고에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의 은총을 넘치게 부어 주소서. 주님의 지극히 동정심 많은 성심의 거처 안에 저희 모두를 받아 주시고 저희가 주님의 성심을 떠나지 않게 해 주소서. 천상 아버지께 대한 지극히 놀라운 사랑으로 타오르는 주님의 성심께 의지하여 이 은총을 간청하나이다.

영원하신 아버지, 당신 아드님의 상속자들에게 하시듯 충직한 영혼들에게 아버지의 자비의 눈길을 보내 주소서. 예수님의 수난을 보시고 그들에게 아버지의 축복을 베풀어 주시며, 끊임없는 보호를 그들을 감싸 주소서. 그리하여 그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저버리지 않고 거룩한 믿음의 보물을 잃어버리지 않으며 오히려 천사들의 무리와 성인들과 더불어 아버지의 무한한 자비를 끊임없이 찬양하게 하소서. 아멘.

(하느님 자비의 5단 기도를 바칩)

◆ 넷째날 ◆ 4월 1일(월요일)

"오늘은 나를 믿지 않는 이들과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는 이들을 내게로 인도하여라."

지극히 동정심 많으신 예수님, 주님께서 온 세상의 빛이십니다. 주님의 지극히 동정심 많은 성심 안에 아직도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영혼을 받아 주소서.

그들에게 주님 은총의 빛을 비추어 주시어 그들도 저희와 함께 주님의 놀라운 자비를 찬양하게 하시며 주님의 지극히 동정심 많은 성심의 거처에서 그들이 떠나지 않게 해 주소서.

영원하신 아버지, 아버지의 아드님을 믿지 않고 또한 아버지를 모르고 있지만 예수님의 지극히 동정심 많은 성심 안에 감추어져 있는 그들의 영혼에 아버지의 자비의 눈길을 보내 주시어 그들을 복음의 빛 앞으로 인도하여 주소서. 그들은 아직도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고 있나이다. 그들도 아버지의 한 없이 너그러우신 자비를 끝없이 찬양하게 하소서. 아멘.

(하느님 자비의 5단 기도를 바칩)

하느님의 자비 축일 전 9일 기도(2)

◆ 다섯째날 ◆ 4월 2일(화요일)

"오늘은 갈라진 형제들을 내게 인도하여라. 그리고 그들을 나의 자비의 바다에 잠기게 하여라. 나의 쓰라린 수난 중에 그들은 나의 몸과 마음, 즉 교회를 잡아 찢었다. 그들이 교회 일치로 돌아올 때 나의 상처들은 치유되고 그로써 나의 수난의 고통은 감소된다."

지극히 자비로우신 예수님, 선 자체이신 예수님, 주님께서서는 주님의 자비를 찾는 사람들에게 빛을 거절하지 않으시나이다. 주님의 지극히 동정심 많은 성심의 거처 안에 갈라진 우리 형제들의 영혼들을 받아 주소서. 주님의 빛으로써 그들을 교회와 일치하도록 이끄시고 주님의 지극히 동정심 많은 성심의 거처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어 그들도 주님 자비의 한없는 너그러우심을 찬양하도록 인도하소서.

영원하신 아버지, 갈라진 우리 형제들에게, 특별히 아버지의 축복을 헛되이 하며 자신들의 오류를 완고하게 주장함으로써 아버지의 은총을 오용하는 자들에게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눈길을 보내 주소서.

그들의 오류를 살피지 마시고 아드님의 사랑과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참아 받으신 쓰라린 수난을 보시고 아드님의 지극히 동정심 많은 성심 안에 감싸여 있는 그들도 아버지의 위대한 자비를 끝없이 찬양하도록 인도하소서. 아멘.

(하느님 자비의 5단 기도를 바침)

◆ 여섯째날 ◆ 4월 3일(수요일)

"오늘은 순수하고 겸손한 영혼들, 그리고 어린이와 같이 단순한 영혼들을 내게 인도하여라. 그리고 그들을 나의 자비의 바다에 잠기게 하여라.

이 영혼들은 내 마음을 아주 많이 닳았다. 그들은 내가 비통한 고민 중에 빠졌을 때 나를 굳세게 해주었다. 나는 그들을 나의 제단에서 방새워 기도하는 지상의 천사들처럼 보았다. 나는 그들 위에 은총의 폭포를 쏟아 주겠다. 겸손한 영혼만이 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다. 나는 겸손한 영혼들을 신뢰하며 돌보아 주겠다."

지극히 자비로우신 예수님, 주님께서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고 말씀하셨으니 주님의 지극히 동정심 많은 성심의 거처 안에 온순하고 겸손한 영혼들과 어린이와 같은 단순한 영혼들을 모두 받아 주소서. 그들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이들로서 아버지께 늘 기쁨을 드리는 이들이며, 하느님 옥좌 앞의 향기로운 꽃다발로서 하느님께서서는 친히 그 향기를 즐기시나이다.

오, 예수님, 그 영혼들은 주님의 지극히 동정심 많은 성심 안에 영원한 거처를 마련하고서 주님의 사랑과 자비를 끝없이 찬미하나이다.

영원하신 아버지, 예수님의 지극히 동정심 많은 성심의 거처 안에 감싸여 있는 온순한 영혼들, 겸손한 영혼들, 어린이와 같은 영혼들 위에 아버지의 자비의 눈길을 보내 주소서. 그들은 아드님과 매우 닮은 영혼들로.

가나이다.

자비와 온갖 선의 아버지, 그들을 보호하신 사랑과 그들을 비추어 주신 빛에 의지하여 간청하오니, 모든 영혼들이 아버지의 자비를 끝없이 찬송하도록 온 세상을 축복하여 주소서. 아멘.

(하느님 자비의 5단 기도를 바침)

◆ 일곱째날 ◆ 4월 4일(목요일)

"오늘은 특별히 내 자비를 공경하고 찬양하는 영혼들을 내게 인도하여라. 그리고 그들을 나의 자비에 잠기게 하여라. 그들은 나의 수난을 대단히 애통해하며 나의 마음 아주 깊은 곳까지 들어 왔다. 그들은 나의 동정심 많은 성심의 모상들이다. 그들은 저 세상에서 특별한 빛으로 밝게 빛날 것이다. 그들은 아무도 지옥불에 가지 않을 것이고, 나는 특별히 그들 각자를 죽을 때에 보호하겠다."

지극히 자비로우신 예수님, 주님의 성심은 사랑 자체이시니 주님 자비의 위대성을 공경하고 특별히 들어 높이는 이들의 영혼을 주님의 지극히 동정심 많은 성심의 거처 안에 받아 주소서. 그들이야말로 바로 주님 친히 발휘하시는 능력으로 힘있는 자들이나이다. 온갖 고난과 반대세력 가운데에서도 그들은 주님의 자비를 믿고 의지하여 전진함으로써 주님과 일치하였나이다.

오, 예수님, 그들은 자신들의 어깨에 온 인류를 짊어졌으며, 그들은 엄하게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고, 그들이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주님의 자비가 그들을 자애롭게 감싸 주실 것이나이다.

영원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더없이 관대하게 베풀어 주시는 헤아릴 수 없는 자비를 공경하고 찬양하며 예수님의 지극히 동정심 많은 성심 안에 감싸여 있는 영혼들 위에 아버지의 자비의 눈길을 보내 주소서.

그들은 살아있는 복음입니다. 그들의 손은 자비의 행위로 가득 차 있으며, 그들의 마음은 기쁨에 넘쳐 지극히 높으신 주님께 자비의 찬가를 노래하나이다.

오, 하느님, 간청하오니, 주님께 의탁하는 그들의 희망과 믿음을 보시고 주님의 자비를 보여 주소서. 그리고 그들이 살아 있는 동안 뿐 아니라, 특별히 죽을 때에 그들에게 약속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예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이 자비를 공경하는 영혼들을 예수님 친히 당신 영광처럼 보호해 주소서. 아멘.

(하느님 자비의 5단 기도를 바침)

하느님의 자비 축일 전 9일 기도(3)

◆ 여덟째날 ◆ 4월 5일(금요일)

"오늘은 연옥에 갇혀 있는 영혼들을 내게로 인도하여라. 그리고 그들을 나의 자비의 심연에 잠기게 하여라. 그리하여 나의 성혈의 폭포가 그들을 태우는 불꽃을 시원하게 하도록 하여라. 그들도 모두 나에게서 매우 사랑스러운 영혼들이다. 그들은 나의 정의에 보상을 하고 있다. 그들을 구원하는 것은 너의 힘에 달려 있다. 내 교회의 보고에서 모든 은사를 끌어내어 그들에게 주어라.

오, 만일 네가 그들이 받는 고통을 안다면 그들을 위해 영신적 자선을 계속 제공할 것이며, 나의 정의에 대한 그들의 빛을 갚을 것이다."

지극히 자애로우신 예수님, 주님께서서는 친히 자비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나이다. 그래서 저는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으나 아직 주님의 정의에 보상을 드러야만 하는 영혼들을 지극히 동정심 많은 주님의 성심 안으로 인도하나이다.

주님의 성심으로부터 솟아 나오는 성혈과 물줄기가 연옥의 불을 끄게 하시고 또한 거기서 주님 자비의 능력이 찬양받게 하소서.

영원하신 아버지, 예수님의 지극히 동정심 많은 성심 안에 감싸여 있으나 연옥에서 단련받고 있는 영혼들에게 아버지의 자비의 눈길을 보여 주소서. 아드님이신 예수님의 애통스런 수난과 그 거룩하신 영혼이 당한 온갖 고통에 의지하여 아버지께 간구하나이다.

아버지의 엄한 정의에 묶여 있는 영혼들에게 아버지의 자비를 드러내 주소서. 저희는 아버지의 선하심과 연민에 어떠한 한계도 없음을 믿고 있사오니,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님의 상처를 통해서 그들을 보살피 주소서. 아멘.

(하느님 자비의 5단 기도를 바침)

[자비5단 기도문]

묵주를 이용한 자비기도 바치는 방법

(시작하면서)

주의 기도. 성모송. 사도신경.(각 1번씩)

(매단마다 '주의 기도' 대신에 아래 기도문을 바친다.)

"영원하신 아버지, 저희가 지은 죄와 온 세상의 죄를 보속하는 마음으로, 지극히 사랑하시는 당신 아들 우리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영혼과 신성을 바치나이다."

◆ 아홉째날 ◆ 4월 6일(토요일)

"오늘은 미지근한 영혼들을 내게 인도하여라. 그리고 그들을 나의 자비의 심연에 잠기게 하여라. 그 영혼들은 내 마음에 아주 고통스러운 상처를 입히고 있다. 그 미지근한 영혼들 때문에 올리브 동산에서 나의 영혼은 너무나 무서운 혐오감을 받아야 했다. 그들이야말로 내가 '아버지, 아버지의 뜻에 어긋나는 일이 아니라면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하고 외치게 된 이유였다. 그들이 가질 수 있는 마지막 구원의 희망은 나의 자비 안으로 뛰어드는 것이다."

지극히 동정심 많으신 예수님, 주님께서서는 동정심 자체이십니다. 저는 주님의 지극히 동정심 많은 성심 안으로 미지근한 영혼들을 인도합니다. 주님의 순수한 사랑의 불 속에서, 시체와 같이 주님을 그렇게도 깊은 혐오감으로 몰아넣은 이 나태한 영혼들이 다시 한번 불붙게 하소서.

오, 지극히 동정심 많은 예수님, 주님의 능력을 넘어서는 아무것도 없사오니, 주님 자비의 전능을 드러내시어 열렬하신 주님 사랑 안으로 그들을 이끄시고 성스러운 사랑의 선물을 그들에게 내려 주소서. 아멘.

(하느님 자비의 5단 기도를 바침)

(매단마다 '성모송' 대신 아래 기도문을 바친다.)

"예수님의 수난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위의 기도 5단이 끝난 뒤에 '성모찬송' 대신에 아래 기도문을 바친다.)

"거룩하신 하느님,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이여,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3번)

오! 저희를 위한 자비의 샘이신 예수성심에서 세차게 흘러나온 피와 물이시여 저희는 당신께 의탁하나이다.(1번)

날짜	지향	봉헌자	지난주 우리의 정성																
3월24일 주일	연 김중화	정데레사(혜경)	< 주일 헌금과 참여인원 >																
	연 이마르코(재상)	가족						구분	8시	11시	영어미사	합계							
	연 정벤자민(대업)	정데레사(혜경)	미사참석인원	95	237	54	386												
	연 이성원	정데레사(혜경)	헌 금	\$540	\$1,571	\$45	\$2,156												
	연 정아네스	가족	< 교무금 > \$3,660 서춘애(3) 정창희(3) 정병구(3-4) 평현팔(3) 김순이(3) 허순구(3-4) 김성현(3) 김승모(1-12) 이미영(3) 한재구(1-3) 황현숙(3-4) 이흥구(3-4) 이병열(4) 윤덕림(3-4) 황국명(2-3) 송동기(1-3) 차영화(3) 박진영(1-4) 김정탁(1-3)																
	연 임그레고리오(재선)	가족																	
	연 서라이문도	서데레사	< 성소후원금 > \$110 서춘애(3) 정창희(3) 정병구(3-4) 김순이(3)																
	연 서라이문도	익명																	
	연 한다윗(홍석)	한수산나(서연)	< Bishop's Appeal > \$60 서춘애(4-5) 정창희(3)																
	연 송정숙	강그레이크스																	
	연 최마틸다	한발레리아	< 부활초/꽃 봉헌 > 한동설 \$100 전문자 \$100 김영자 \$50 이육경 \$100																
	연 최베드로(취종)	8구역 일동																	
	생 이안나(미영)	정바오로(병섭)	* 한원숙 발레리아 가정에서 선종봉사회에 \$200 을 봉헌하셨습니다.																
3월 26일 화	연 최베드로(취종)	가족																	
	연 서라이문도	서데레사	< 건축헌금 > 목표액 \$300,000																
	연 정마리아(연희)	채줄리아																	
	생 정임마누엘 축일	정데레사	<table border="1"> <thead> <tr> <th></th> <th>지난주</th> <th>금 주</th> <th>누 계</th> </tr> </thead> <tbody> <tr> <td>약정액</td> <td>\$310,715.28</td> <td>-</td> <td>\$310,715.28</td> </tr> <tr> <td>봉헌금</td> <td>\$291,245.28</td> <td>-</td> <td>\$291,245.28</td> </tr> </tbody> </table>						지난주	금 주	누 계	약정액	\$310,715.28	-	\$310,715.28	봉헌금	\$291,245.28	-	\$291,245.28
	지난주	금 주						누 계											
약정액	\$310,715.28	-	\$310,715.28																
봉헌금	\$291,245.28	-	\$291,245.28																
	생 허임마누엘 축일	허마리아																	
3월 27일 수	연 부모님	이바오로	*약정자 : - *금주봉헌자 : - *총 230세대 중 184세대가 약정해 주셨습니다.																
	연 서라이문도	영원한도움의어머니																	
	생 성유진	성루카	<p style="text-align: center;">☺☺☺☺ 새로 오신 분 ☺☺☺☺</p>																
	생 자녀들	김카타리나																	
	생 서아가다 생일	서데레사	* 9구역 최순일/김옥순 가정 ☎ 925-459-0893																
	생 채줄리	채토마스																	
3월 28일 목	연 서라이문도	서데레사	* 버클리 권보미 엘리사벳 가정 ☎ 510-717-8849																
	연 정마리아(연희)	채줄리아																	
	연 최베드로(취종)	조바실리오(진행)																	
	연 메리 오쿠모토	신미카엘라																	
	생 유마리아	채줄리아																	
	생 정진표	신미카엘라																	

2013년 신앙생활 지침 : “주님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루카 19,5)

- 공 지 사 양 -

◆ 파스카 성삼일 전례

- * 3월 28일(목) : 주님 만찬미사 저녁 8시
- * 가난한 이들을 위한 언급
- * 수난감실 조배(각 구역별)

각 구역별 수난감실 조배시간

밤 10-11시	뜨락회	오전 5-6시	4구역
밤 11-12시	2구역	오전 6-7시	3구역
밤 12- 1시	8구역	오전 7-8시	10구역
밤 1 - 2시	1구역	오전 8-9시	9구역
밤 2 - 3시	버클리	오전 9-10시	7구역
밤 3 - 4시	오클랜드	오전 10-11시	샌리엔드로
밤 4 - 5시	6구역		

- * 3월 29일(금) : 주님 수난예식 저녁 8시
- * 성기복구를 위한 언급
- * 십자가의 길 오후 3시
- * 3월 30일(토) : 부활성야 미사 저녁 8시(부활성야헌금)
- * 3월 31일(일) : 주님부활 대축일미사 오전 11시
- * 오전 8시 미사는 없습니다.
- * 주일학교 합동미사
- * 각 구역별 음식 바자회

◆ 부활판공성사

사순기간 동안 매 미사 30분전에 보는 모든 성사는 판공 성사입니다.

◆ 부활맞이 대청소 : 3월 24일(오늘) 교중미사 후

◆ 세례식 : 3월 30일(토) 부활성야미사 중

~~~~~ 세례자 명단 ~~~~~

강인겸 루치아노(6구역) 김은혜 데레사(10구역)  
김복철 바오로(5구역) 김청남 요셉(5구역)  
고정자 요세피나(5구역) 윤성일 사도요한(7-2구역)

◆ Rice bowl 봉헌 : 성당입구에서 받고 있습니다.

◆ 자비주일 고해성사(주보 3~5 면 참조)

4월 7일(주일) 미사 9분 전

**3월 구역모임 지에서 15-16강**

|        |             |           |
|--------|-------------|-----------|
| 8-1 구역 | 3월24일(일) 2시 | 교육관 106호실 |
|--------|-------------|-----------|

◆ 모임

- \* 뜨락회(청년모임) : 매주 교중미사 후 201회의실
- 성경공부 : 매월 첫째주일/셋째주 금요일 저녁 7시반
- 기도모임 : 매주일 10시 ~ 10시 40분 1회의실
- \* 사목회의 : 3월 24일(오늘) 교중미사 후 107호실

◆ 레지오 아치에스 행사 : 3월 24일(오늘) 중식 후 성당  
대상 : 레지오 단원

◆ 가톨릭교회 교리서 통독반 모집

시작 : 5월부터  
신청 : 3월 24일까지 친교실에서 접수  
문의 : 전교부 510-703-7350

◆ 북가주 ME 25차 첫 주말

일시 : 7월 5일(금) ~ 7월 7일(일) 2박 3일  
장소 : 산다미아노 피정센터(대빌 소재)  
문의 : 한치용 요셉/한현자 헬레나 415-810-3175

◆ 연도 안내

3월 24일(오늘) 교중미사 후 최휘종 베드로 형제님의  
1주기 연도가 있습니다.

◆ 오클랜드 교구 소속 가톨릭 장례 및 묘지서비스 안내

성김대건 묘역을 헤이워드 Holy Sepulchre Cemetery에  
조성하게 됐습니다. 할인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문의 : 카니김 925-787-6267

◆ 장학위원회 임원

부위원장 : 김미숙 말가리타, 재정담당 : 이병열 요셉

**안국학교 소식**

- \* 3월 30일(토) : 휴교(부활절)